

## “호남 잡아야 대권 잡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23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선 공신선거운동 중반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호남 표심' 공략을 위한 '호남 대합'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땃발 사수'를 목표로, 국민의힘은 '서진(西進)정책'을 앞세워 호남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목표와 신안 하의도를, 김기현 원내대표와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향후 전국적인 표심에 호남 민심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2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 출동해 땃발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이날 윤석열 후보가 목표와 신안 하의도를, 김기현 원내대표와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박빙의 승부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대선이 접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조직을 다지고, 국민의힘도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연일 광주·전남을 찾은 등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 결집을 통해 수도권 등지로 이재명 후보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복안이며, 국민의힘

민주, 국회의원 총동원 호남 결집 통해 '이재명 바람' 복상 준비 국힘, 목포·신안에서 “우리가 DJ 계승” 주장 ... 호남 공략 총력

도 호남 30% 지지를 목표로 호남에 공을 들이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서진정책'을 이번 대선에서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서구 상무지구에서 공동 거리 유세를 진행하며 '이재명 바람몰이'에 나섰다. 향후 선거일까지 총력전을 결의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대선 승리의 그 날까지 밤낮없이 뛰고 또 뛰겠다"며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끌어, 이재명 당선자와 함께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으로 이번 추경의 부족분을 온전히 보완하겠다"며 "영업 제한 24시 완화 등 방역체계 전환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비롯해 선거 전 국회의 주요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전원은 더욱 가열차게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 뛰겠다"며 "경찰 공화국을 막아내고 4기 민주정부를

여는 데 광주가 선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가와 골목을 발로 뛰며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와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를 잇따라 찾으며 호남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 유세에서 '복합소멸'을 전면에 내세워 20~30세대 표심 공략에 나선 윤 후보는 이날 목포 유세에서 김 전 대통령과 현 민주당을 분리하며 목포 등 전남 민심을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목포역 광장 유세에선 김 전 대통령 이름을 15번 이상 언급하며 칭송하고선 자신을 "DJ 정신 계승자"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세력" "민주당을 망가뜨린 세력"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민심을 파고들었다.

윤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강조하셨다"며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의 외교, 안보, 경제 또 정치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DNA가 담긴 민주당 맞나"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며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 구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지역을 돌며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였고,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광주를 찾아 이들 간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와 관련된 피해 상가 대책 위, 예비입주자, 희생자 가족협의회 등을 만난다. 또한 21일과 22일 광주와 목포를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했던 이준석 대표도 23일 광주를 다시 찾아 충장로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전남 출산율 감소 2021년 출생·사망 통계 출생아 수 광주 8.8% 증가

지난해 광주와 전남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인구소멸위기 지자체가 많은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은 광주 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광주 출생아 수는 8000명으로, 전년(7300명)보다 8.8%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2020년 9700명에서 지난해 8400명으로, 13.5%나 감소했다.

광주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따뜻한 광주만들기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광주 0.90명·전남 1.02명으로, 전년보다 광주는 10.6% 증가, 전남은 11.2%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15세~49세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광주와 대전(0.6%), 세종(0.1%)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26만 5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늘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내 인구는 2011년까지만 해도 1년에 20만명 넘게 자연증가했으나, 2017년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760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고, 2020년부터는 자연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연감소 폭이 전년(-3만 2600명)보다 2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인구가 감소한 셈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1만 900명), 전남(-9100명), 경남(-7800명) 등 14곳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수도권 서울 인구도 3400명 자연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코로나 7000명대 확진

광주·전남에서 연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기침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뻐 정도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층의 감염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3월 개학을 앞둔 교육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2·6면>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4225명, 전남 3083명 등 73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 일일 확진자 3000명대는 처음이다. 이어 이날 0시 이후 오후 6시까지 광주 3886명, 전남 2342명 등 모두 6228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이들 연속 7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

광주에선 이날 0시 기준 서구 소재 요양병원 52명, 광산구 소재 요양병원 13명 등의 추가 확진자

## 20대 이하가 절반 '육박' 3월 등교 앞둔 교육계 비상

가 발생했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는 1131명이었다. 특히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감염자는 3090명으로, 지역사회 전반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는 또 여전히 2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확진자 중 20대 17.5%(739명), 20대 미만 31.7% 등 20대 이하는

49.2%였다.

전남에선 이날 여수 470명, 순천 393명, 목포 333명, 광양 179명, 무안 173명, 나주 155명 등 22개 시·군에서 모두 확진자가 속출했다. 나주 요양원, 광양 어린이집과 순천의 모 대학 기숙사 등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졌다.

전국적인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7만 1452명 늘어 누적 232만 91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KIA 타이거즈 함평캠프 마무리 ▶18면  
신 팔도명물 - 제주 '카름 스테이'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광역시 화정동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희생된 근로자 여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여섯 분의 피해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밤낮으로 구조 작업에 애써주신 소방청 관계자들과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광주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예정고객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피해보상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큰 염려와 불편을 겪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민의 안전과 행복, 더 나은 삶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의 의견을 담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일동

사죄의 마음을 담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